

지역 소식통

정읍시, '마음의 치유 우리 꽃 전시회' 개최

정읍시 자생식물연구회(대표 이선희)가 오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연지아트홀에서 100여 점의 아름다운 야생화를 선보이는 '마음의 치유 우리 꽃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생식물연구회 소속 회원 18명이 정성껏 가꾼 100여 점의 우리 꽃 자생화가 전시된다. 개최식은 개막 첫날인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야생화 심기 체험과 판매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시민들이 일석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생식물연구회는 세종국립수목원과 한국야생화협회 등 전국 단위 전시회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회가 지역 자생식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차항문화관

상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읍시가 지역 임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와 다양한 공예를 즐길 수 있는 임산물체험단지 차항문화관의 상시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올해 체험 프로그램은 요리 체험 4종과 비요리 체험 3종으로 구성돼 방문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요리 체험은 버섯 피자 만들기, 호두 초코 쿠키 만들기, 퍼핑콩 오란다 만들기, 다시·인절미 만들기 등 요리 체험은 전사립 드로잉, 슈링클스 공예, 양말복 공예로 알차게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요리 체험의 경우 원활한 재료 준비를 위해 최소 일주일 전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비요리 체험은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사실과 달라" 논란 일축

조민규 고창군수 후보자 발언 반박... 테마파크 유통센터 사업 등 정상 진행

투자 고용 계획 제시한 입주기업의 지역상생형 사업 지속 추진 의지 강조

고창군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고창군수 후보자 선출 합동연설회에서 제기된 조민규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고추종합유통센터 입주기업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한 입장을 31일 밝혔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관련,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지급기한을 3년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리조트 부지는 계약금(10%)과 중도금(10%)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며, 잔금(80%)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군은 잔금 납부 기한 조정이 인허가 절차 지연, 부지 성토 지연, 반복적인 민원 등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범위 내에서 6개월 연장 승인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PF)은 사업자 책임이므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시협약서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실시협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본 사업은 3년 이내 착공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장기 지연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34조에 있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부여된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창군은 모나유평과 체결한 실시

협약서 비공개와 관련한 "30년 비밀 유지 의혹"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실시협약서는 민간기업의 재무구조, 투자조건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고창군은 해당 자료를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의회에 2차례(2024년 9월, 2025년 5월) 제출해 의정활동 목적의 검토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어 내부 통제 기능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비공개는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비밀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추종합유통센터 입주기업을 '부실기업'으로 규정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추종합유통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운영 효율 저하로 장기간 활동도가 낮았으나, 민선 8기 이후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해 2024년 7월 수도권 식품원료 기업 (주)에스비푸드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며 정상적인 사업 전환이 이뤄졌다.

매각 과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계약서에는 공장 가동 시 △지역민 30명 이상 우선 채용 또는 △인원재 30% 이상 고창산 농산물 구매 조건을 명시했다. 특

히 고창군은 해당 조건 미이행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확보해 사업 이행을 담보했다.

입주기업인 (주)에스비푸드는 계약 체결 무렵 자본금 15억원의 법인으로, 이 점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객관적 사실이다. 해당 기업은 고추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 총 267억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고용계획을 제시했으며, 고창산 고구마 연 800톤, 쌀 연 1,000톤 구매계획도 함께 밝히는 등 지역상생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내부 리모델링 착공, 기계설비 반입, 분사 이전 및 법인명 변경 등 후속 절차가 실제로 추진된 점을 볼 때, 단순히 일부 자금조달 문제나 연체로 발생 사실만 해당 기업 전체를 부실기업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지역고용과 지역농산물 활용,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상생형 투자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창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군정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관광산업대상' 수상

국내 유일 수상 영예... 세계유산 브랜드 강화·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성과 주목

고창군이 지난 31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관광산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에 제정된 지방자치 시상제도로,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민간이 실시하는 지방정부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수상기관은 1차 정량평가, 2차 전문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 및 공적 인터뷰, 3차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전국 1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품은 도시 고창' 브랜드 강화를 통해 지역 고유의 세계유산과 문화·자연



자원을 체계적인 관광브랜드로 발전시켰다.

또한 2023 고창 방문의 해를 계기로 축제 경쟁력을 높여 계절별 특색을 살린 축제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얻었다.

아울러 새만금 등 서해안권 발전과 연계해 고창종합테마파크,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에 힘쓰며, 서해안권 핵심 관광거점으로서의 성장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김영식기자

쓰양, 부안 갯벌 프로젝트 홍보

갯벌 체험 및 구입·부안 먹거리 먹방 진행... ESG 프로젝트 확산 기대

부안군은 대한민국 대표 먹방 유튜브 쓰양이 부안을 방문해 갯벌 체험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며 ESG 환경·생 부안 갯벌 프로젝트 홍보에 나섰다

쓰양은 평소만 일대 갯벌에서 직접 조개를 캐고 생태를 관찰하는 체험에 참여하며 살아있는 갯벌 생태계를 몸소 경험했다.

체험 과정에서 쓰양은 "갯벌을 지키는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군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평·생 부안 갯벌 프로젝트는 1인 1명의 갯벌을 소유하는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갯벌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프로젝트이다.

특히 갯벌은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핵심 자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갯벌 체험 이후에는 부안의 대표 먹거리 체험도 이어졌다.

쓰양은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주



꾸미 요리와 백합죽 등 지역 특산 음식을 맛보며 특유의 먹방 콘텐츠를 선보였다.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단순 관광을 넘어 체험·환경·먹거리·콘텐츠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 모델을 강화하고 ESG 가치에 대한 대중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갯벌 보전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 지원

부안군, 중동사태 장기화 비상경제 대응... 소상공인 경영 안정 보탬

부안군은 중동 불안으로 인한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한 2025년 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2025년 기준 카드매출액의 0.4%)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 택사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가능하며 군은 2024년도부터 지원금 중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자전거대여소, 시 직영 전환·본격 운영

정읍시가 시민 편의 증진과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던 자전거대여소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시는 지난 13년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대여소를 기적의 놀이터 개장과 운영 방식 전환 요구에 발맞춰 새롭게 개편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이용자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 대여소 위치를 기존 기적의 놀이터 앞에서 내장산 문화광장 입구로 이전해 새 출발 한다.

대여용 자전거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1인용, 2인용, 3·4인용 등 다양하게 구비해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정기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말에도 정상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